

감산... 휴무... '위기의 광주경제'

기아차·삼성광주·금호타이어 '빅3' 실물경기 악화 직격탄

500여 협력업체 가동률 급락... 자금난 겹칠땐 줄도산 뻔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조업시간 단축에 이어 삼성광주전자의 장기간 휴무, 금호타이어의 감산 등 광주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빅 3 기업'이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이를 대기업의 경영위기는 500여개 협력업체들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예상된다.

15일 기아차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뉴카렌스 등을 생산하는 1공장의 조업시간을 기존

주·야간 10시간씩에서 주·야간 6시간씩으로 줄이기로 했다.

스포티지를 만드는 2공장의 경우 잔업없이 주·야간 8시간씩으로 배정됐던 조업시간이 주·야간 5시간씩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의 감산량은 보름동안 1천500여대에 달할 전망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물량이 감소하면서 재고량이 쌓여 노사간 합의를 통해 조업시간 단축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단축

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별로 감산과 정상가동을 되풀이해온 삼성광주전자 역시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8일동안 휴무에 들어간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제철적인 비수기인데도 북미시장 수출물량이 소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휴무일수를 연장한 셈"이라며 "휴무 이전까지는 세탁기·에어컨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작업·특근을 실시하고 나며

지 생산라인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하루 생산량의 5%에 달하는 타이어 감산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12월 들어 26%까지 감산량을 늘렸다. 이에 따라 하루 생산량이 광주공장은 4만4천본→3만본, 곡성공장은 4만3천본→3만4천본으로 줄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광주·곡성공장의 재고량은 1천500만본으로 적정재고량 700만본의 두배를 웃돌고 있다"면서 "재고량을 옮겨 막까지 1천100만본으로 줄이기 위해 감산을 결정했고, 지난 13일부터 휴일·연장근무를 없앴다"고 밝혔다.

'빅 3'가 흔들리면서 협력업체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250여개에 달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의 공장가동률은 15일 당장 70~80%대에서 50%대로 크게 떨어졌다.

광주시 소속산업단지내 D업체 대표는 "납품물량이 줄어들어 가동률이 55%까지 떨어졌고, 40여명의 유 휴인력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2주간 계속될 경우 자금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연말을 어떻게 넘길지 고민"이라고 걱정했다.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인 하남산단내 K업체 관계자는 "생산라인 5개 가운데 2개만 가동중이며, 최근 50여 명 직원중 24명을 고용유지조치해 휴업처리했다"면서 "내년이 더 어렵다는데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銀 조직개편 단행

임원·본부장 등 인사... 전략조정실 신설

광주은행은 15일 사업부제 조기정착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집행임원, 본부장 및 일부 부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은행은 비서실과 전략기획팀을 통합해 경영기획본부 소속의 전략조정실을 신설하는 등 1개 부서내 팀을 축소해 1국 18부 3팀으로 조직을 슬림화했다고 밝혔다. 전략조정실은 은행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조정하는 등 경영본부 내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비서실 업무 전반을 맡게 된다. (인사명단 20면)

또 서울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점을 서울영업부로 개칭했다.

광주은행은 이와함께 대폭 물갈이보다는 조직안정을 위해 집행임원(부행장보) 4명을 전원 유임시켰고, 지역본부장도 5명중 4명을 유임시켰다.

김재문 하남공단지점장이 광주1지역본부장으로 새로 선임됐고 남혁우 광주 1지역본부장은 광은비지니스 사장으로 내정됐다. 신임 본부장에는 정찬주 PB복합사업부장이 기업고객부부장(이사대우)에, 정기복 인사부장이 업무지원본부장(이사대우)에 각각 발탁됐다. 광주은행은 본부부서장과 영업점장에 대한 후속 인사를 연말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매주 만들기'

제조·보관·판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유소의 현황을 오피넷에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법이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해당 자체가 문제 주유소의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성명, 구체적 불법거래행위 내용, 행정처분명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버 공간상의 의무공개장소를 오피넷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지난 13일 곡성 옥과농협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우리 콩으로 매주를 만들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이날 고향생각주모임 전남도회, 다문화 가정 여성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콩 지킴이 사업' 품 평화를 기원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소폭 증가

10월 정기예금 1.2% ↑ ... 안정자산 선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0월

금융기관의 여·수신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정기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역 금융기관의 총 여신은 48조2천389억원으로 전달보다 0.8%(3천724억원), 총수신은 66조9천1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달금은 10월 210억원으로 1.2%(97천888억원)가 각각 늘었다.

금융기관별 총여신은 예금은행이 0.8%(2천332억원) 증가한 31조2천 225억원, 비은행기관은 0.8%(1천 391억원) 늘어난 17조164억원이었고 총수신은 예금은행이 3.2%(9천19억원) 늘어난 28조8천294억원, 비은행 기관은 0.3%(1천141억원)가 감소한 38조9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난 9일 출범한 농협개혁위원회가 종양회 지배구조와 일선조합 재정비 등 현안 뿐 아니라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식을 포함, 보다 근본적인 농협 개편방향까지 논의한다.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15일 두 번째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위에서 내년 1월

중순부터 농협 신·경·분리문제를 논의해 2월초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혁위는 14~

15일 이틀간 모호텔에서 합숙하며

▲ 회장권한 겸제, 임원 자격기준, 자

내년 경매물건 '봇물'

장기 불황 부동산 경매 급증

빚 헤더 서민 주택도 내몰려

부동산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내년에 광주·전남에서 법원 경매로 내몰리는 서민형 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광주·전남은 올해 경기침체 속에 부동산 경매물건이 이미 상당부분 쌓여있어 내년 하반기 까지 지역 경매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광주·전남에서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물건은 총 4만3천58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만678건)보다 7.1%(2천902건)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대출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반면 이들 경매물건의 낙찰률은 34.6% 수준으로 올해 평균(40%)을 크게 밟았지만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또 이같은 현상은 하반기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경매시장 침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건별로는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의 낙찰률이 올해 하반기 들어 급락하면서 12월중 낙찰률이 8.7%까지 떨어졌다. 토지도 하반기 낙찰률이 20%대까지 '큰두박질' 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단지 전체가 경매에 부쳐지는 '통경매'가 잇따라 전망이다.

미분양주택 급증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자금경색이 커지면서 건설사 부도 등에 따른 '통경매'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농협 신·경분리 추진?

개혁위 "내년 2월초까지 결론 내겠다"

지난 9일 출범한 농협개혁위원회가 종양회 지배구조와 일선조합 재정비 등 현안 뿐 아니라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식을 포함, 보다 근본적인 농협 개편방향까지 논의한다.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15일 두 번째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위에서 내년 1월

중순부터 농협 신·경·분리문제를 논의해 2월초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혁위는 14~

15일 이틀간 모호텔에서 합숙하며

▲ 회장권한 겸제, 임원 자격기준, 자

회사·지역지부 역할, 일선조합 자금 지원 방식, 신입사원 채용기준(종양회 관련) ▲조합원 선출방식, 조합원 정기회원, 조합 광역·규모화, 조합선택권(일선조합 관련) 등 모두 22개의 제작된 설정했다.

내년 1월말 정부의 개정안 국회 제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농협법 개정과 관련된 일선 지역조합과 종양회, 경제사업 활성화 문제를 먼저 다음 1월

3일까지 결론을 낸 뒤, 이후 2월초까지 개혁위를 유지하며 신·경·분리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전문법률 상담

변호사 나봉수

직원 모집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실분을 모십니다.(남/여)

▶ 아파트

▶ 주택

▶ 속박시설(모집)

▶ 토지

▶ 오피스텔/대세대

▶ 계약동

▶ 공장

▶ 농가전분시설

▶ 무기기

▶ 오피스텔

▶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실분을 모십니다.(남/여)

▶ 고기기

▶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실분을 모십니다.(남/여)

▶ 고기기